

2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충현의 만나

2000

이 달의 말씀 · 열왕기상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2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2000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열왕기상

기 도 제 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며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김창인 원로목사님, 김성관 위임목사님, 남녀 교역자들, 당회원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날로 부흥하는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제3회 전국 목회자 세미나가 은혜가운데 이루어 지게 하소서.
7.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 보는 일에 저희를 써주소서.
8. 겨울수련회 성경학교를 통해 모든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영적변화와 성령충만함을 주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어느새 2000년도의 첫 달을 보내고 둘째 달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기도드리면서 문안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대단히 무서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를 부르는 자. 선지자 노릇을 한 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이 주님앞에서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엄하고 두려운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우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네가서 떠나가라!”

그런데, 바로 그 주님께서 같은 성경 25장 34절에서는 매우 부드럽고 다정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축복된 말씀을 듣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베푼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을 향해 바삐 달려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이 붙들고 또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생명이 말씀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2000년 2월

위임목사 김 성 관

충현의 만나

— 2000년 2월 —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열왕기상 서론

열왕기 상,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정기' 역사, 곧 다윗이 죽은 뒤부터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국이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역사를 다룹니다. 특히 열왕기상은 솔로몬으로부터 남 유다의 여호사밧과 북 이스라엘의 아합에 이르는 시기를 다룹니다.

솔로몬의 큰 업적 가운데 하나는 예루살렘을 중앙성소 곧 성전을 갖춘 왕도로 발전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데 악한 뿌리들을 지나치게 많이 남겨 놓았습니다. 북왕국으로 갈라진 열 지파는 백성들의 마음을 남유다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남 예루살렘에 대응할 수 있는 제단을 세움으로 우상숭배의 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더 나아가 아합과 그의 악처 이세벨은 바알숭배를 여호와 숭배와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거나 오히려 여호와 숭배를 멸시하는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신속히 몰아갔습니다.

결국 열왕기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예고하신 축복과 징벌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열왕들을, 또한 그 나라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명백하게 보여 주는 산 교훈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새 백성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사람의 연약성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의 슬픔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주요내용

1. 솔로몬의 왕위 등극(1:1-2:46)
2. 솔로몬의 업적과 영광(3:1-8:66)
3. 솔로몬의 영적 쇠락(9:1-11:43)
4. 왕국의 분열((12:1-14:31)
5. 유다 왕 아비암과 아사(15:1-24)
6. 이스라엘 왕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그리고 오므리(15:25-16:28)
7. 이스라엘와 아합와 선지자 엘리야(16:29-22:40)
8. 유다 왕 여호사밧(22:41-50)
9.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22:51-53)

건축가들의 말에 의하면, 성숙하고 노련한 건축가가 되어 갈수록 건축물에 대한 생각이 점차 달라진다고 합니다. 곧 좋은 건물은 좋은 재료와 좋은 설계도면에 의해 기계적으로 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을 주도하는 지도자들의 정신과 영혼으로 건축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미 잠언 기자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24:3)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언 기자가 잠언 전체를 통하여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 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후, 솔로몬은 이제 자신이 거할 궁을 건축합니다. 그 궁은 거대한 백향목 기둥으로 떠받쳐지고 측면에 많은 방들이 있는 건물로서, 길이가 46미터, 너비가 23미터, 높이가 13.8미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처 외에도 여러 건물들을 지었는데, 이 모든 건물들은 원래의 예루살렘성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그 집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더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지은 그의 거처와 부속건물 들 중에는 이방여인들을 위한 건물들도 포함되었습니다(8절). 그리고 하나님에대한 배교가 그 건물들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집을 짓고 있습니다. 하루의 집, 한 주간의 집, 일년의 집, 일생의 집을 짓습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집을 짓습니까?

집은 재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짓는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일년의 집' 을 하나님의 지혜와 순결한 믿음으로 짓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사 람들은 종종 '마음만 있으면 되지 형식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형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성의를 보이고 싶지 않은 인색한 마음에 대한 변명이라면 그것만큼 위선적인 말도 없을 것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형식도 갖추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예식이 있을 때에는 다른 때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자 합니다. 형식에 매이는 것은 좋지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정성을 다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참으로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는 또한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은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세세하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예배의식에는 각각의 순서에 해당하는 도구들과 그릇들이 있어야 했는데, 솔로몬은 그 하나하나를 가능한 한 최상의 질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기구들을 사용하여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람의 죄를 대조시켰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떼어놓은 죄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간격을 메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 때에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나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점검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자신을 온전히 내어 드리십시오.

준비된 마음 준비된 자세로 예배를 드립니다

▶ 기도 제목 / ① 거룩하고 성결하게 준비된 예배자로 하나님앞에 무릎 꿇게 하소서 ② 김창인 원로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우리는 '앙꼬없는 찐빵' 이니 하는 말로 어떤 일에서 '핵심' 이 빠졌다는 사실을 표현합니다. 찐빵에 앙꼬가 없으면 그것은 더 이상 찐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 전체를 볼 때, '그것' 이 없으면 삶이 껍데기 밖에 남지 않게되는 '알맹이' 처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은 어쩌면 알맹이를 찾아 소유하고자 달려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전을 다 완공한 솔로몬은 드디어 여호와와 언약케를 시온에서 메어 올려 성전의 지성소 안에 안치시킵니다. 드디어 성전이 성전다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케가 들어옴으로 비로소 성전이 제 역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언약케는 성전의 가장 깊은 곳을 상징합니다. 이 케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이 담겨 있고,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근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스라엘은 결코 의미없는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언약케가 성전에 들어옴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로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받으실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이 선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의 죄의 짐을 지고서 성전에 와서 속죄의 양을 바침으로 죄사함을 선언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의 속죄하심에 의해서만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임재앞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허공을 치게 됩니다

▶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오직 내 안에서 예수님이 존귀케 되시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잘 섬겨 나갈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찬송 / 344장 본문 / 왕상 8:12-21

기차 그림이 그려있는 전도지가 있습니다. 기관차가 있고, 그 뒤에 기관차의 힘에 의지해서 매달려있는 객차나 화물차가 있습니다. 그 전도지에서는 기차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생활이라고 할 때, 기관차는 '하나님의 말씀' 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일에 기차 전체를 끌고 가는 기관차가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이라면 그 기차는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가 급기야는 멈추어 설 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말씀에 대한 뿌리깊은 사랑과 순종만큼 중요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살아가다보면 사정없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지만, 결국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오셨던 과거의 사건들과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셨는 바, 솔로몬은 그 내력을 자세히 미루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루시도다”.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이미 정하셨던 언약에 기초한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이렇게 역사해오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자신과 이스라엘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끌어가실 것인지를 확신하게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정에따라 적당히 생활하고 계십니까?

흔들임없이 견고한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② 충현교회가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찬송 / 447장 본문 / 왕상 8:22-30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말씀을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부하느라 읽고 가르치느라 읽고 취미로 읽고 의무감에서 읽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을 의외로 적습니다.

솔로몬은 성전건물 입구에 서서 백성을 향해 서서 긴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긴 기도는 바로 솔로몬이 경험한 바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24절). 이것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매일의 생활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나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일방적인 '청구서'와 같이 드러지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잘 알았습니다(27절).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말씀 속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기적'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주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 살아간다고 하는 자들이 이기적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벧전2:9). 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곧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자신을 드려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자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는 자신을 포함하여 자기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은 자들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웃에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전쟁과 가뭄의 심판을 자초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에따라, '만일에 그들이 이러 이러한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전을 향해 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를 드린다면 부디 용서해 주시기' 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특히, 그가 기도하는 대상에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놀라울 정도입니다(41-43절). 솔로몬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뿐 아니라 세상의 중보자로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어떠합니까? 행여나 불신 친족이나 이웃들에게 이기적이라는 인상을 주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세상사이에 중보자로 서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자로 살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완전히 아시고 그 형편가운데로 임하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 처럼, 우리도 형제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뿐 아니라, 형제는 나의 기도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솔로몬은 백성을 위해 하나님앞에 중보기도를 드린 후에, 이제는 백성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에는 서 있던 솔로몬(22절)이 기도가 끝날 무렵에는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54절). 그만큼 백성을 위한 그의 기도는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백성을 위한 그의 축복도 매우 진실됩니다. 그의 축복의 메시지 중 가장 핵심되는 부분은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며 버리지 마옵시고". 솔로몬은 성전이 이스라엘 중에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매우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얻을 가장 위대한 축복은 전쟁에서의 승리나 건강이나 부와 재물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떠나시지 않는 인생이 되게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복된 기도는 주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저를 떠나지 마시고 저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② 예배를 수종드는 예배위원, 성례위원, 안내위원, 헌금위원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어느 공동체이든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영적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들에게 지도자는 단 한 분 하나님 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따라서 지도자가 하나님앞에서 얼마나 신실한가의 여부가 그 공동체의 행불행을 좌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본문 끝절에 기록된 바, 백성들이 왕을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마음에 즐거워했다는 말씀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기쁨으로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되 하늘의 진리로 축복하는 왕, 그리고 그 축복을 왕에게 돌리면서 맘을 다해 기뻐하고 흠족해하는 백성. 이 세 요소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전형입니다.

우리 각자는 작건 크건 간에 나름대로 한 공동체를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한 가정에서, 교회학교의 한 반에서, 소그룹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그 공동체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나와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만이 우리가 선택하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오늘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 임하도록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배하는 공동체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립니다

▶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진정한 기쁨으로 채워 주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 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그들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로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두 번째 기브온에서 나타 나실 때도 분명히 솔로몬의 간구를 들으셨으며(1-3),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에 복과 저주의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6-9)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순종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일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심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단순히 무섭고 광대하신 분으로만 생각한다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도 엄위하신 분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 하신 대로 응답하시고, 또한 언약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이 아무리 어렵고 험난하다고 하더라도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앞으로 나갈 때 마침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이(계2:26) 그분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기도제목 / ① 날마다 주님의 언약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
 아 보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전
 심으로 여호와께 향한 것을 보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 외에도 구하
 지 아니한 부와 귀와 영화를 더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남방의
 여왕조차도 감탄해 마지않는 화려한 궁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께서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하는 일과 궁을 건축하는 일을 돕도록 두로왕
 히람과 역군을 붙여 주실 뿐 아니라(11절) 성전 건축에 소용 될 온갖 백향
 목과 잣나무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으로 하여금
 당시 주변의 왕국들 가운데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영광과 많은 나라들과의 교류는 단순히 솔로몬의 영광에서 끝
 나지 않고, 솔로몬으로 솔로몬 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던 솔
 로몬이 이 영광 가운데서 서서히 하나님을 잊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엄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9:6-9) 서
 서히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리 떠나 자기 의를 내세우며, 영적 나태에 빠
 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광을 우리의
 것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
 다. 하나님의 의에서 떨어져 하나님의 엄위 하신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아 성결케 합시다

▶기도제목 / 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업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
 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세 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는 자신이 가장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자신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부강함과 무역과 그 명성에 있어서 이방 나라에 까지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화근이 되는 줄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녀가 들은 모든 소문에 대해서 확인을 한 후에 솔로몬을 칭찬합니다(6절). 또한 그 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9절). 그러나 솔로몬은 그 모든 영광을 자신이 취해 버렸습니다. 스바 여왕이 구하지도 않은 물품까지 모두 들려 그에게 영광을 돌려 보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부추켜 주고, 칭찬하면 귀가 간지러워 다른 소리를 듣지 못하고, 눈이 가려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의 칭찬에 귀를 기울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말씀 위에 자신을 믿음으로 세워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 계시는 주님,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마28:20) 그분으로 더불어 참 지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기도제목 / 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솔로몬이 하나님께 백성들을 잘 돌아볼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는 부귀까지 허락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조력자들을 더 붙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 사치와 부패에 빠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호화스런 궁정 생활(14-22절) 그리고 열왕들의 조공(23-25절) 군비 확장(26-29절) 이 모든 것들이 솔로몬의 영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영화를 영광과 감사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방탕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백성들의 목자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백성들을 착취하는 폭군의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의 무리한 군비 확장과 왕궁의 건축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허리를 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땅 그 종살이하는데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이시거늘, 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낸 자기 동족들로 또다시 심한 노역 가운데 몰아 넣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습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왕들은 많은 말들을 두지 말 것을 명령하셨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말과 병거에 대한 애착을 떨치지 못했습니다(26-29절).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께 대한 사랑보다는 물신(物神)에 대한 사랑으로 연약하여진 연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를 죄짓는 기회로 변질시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며 살아야 할 백성들입니다

▶기도제목 / ① 날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솔로몬이 중요한 까닭은 그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통로로서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영화로서 많은 이방과 열방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선포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은혜의 기회를 죄짓는 기회로 악용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화와 부귀를 지속할 목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방의 여인들과 정략적으로 결혼 한 것입니다(1-3절). 문제의 심각성은 이 여인들이 몸만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도 함께 가지고 왔다는 데 있습니다. 순수한 신앙을 이어가야 할 솔로몬이 이들 이방 여인들로 말미암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이방 여인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4-8절). 그는 이미 모세를 통하여 순수한 신앙의 보존을 위해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금지한(신7:1-5) 계율을 어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착하는 솔로몬의 어리석음과 호색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돌이킬 줄 모르는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사후 왕국이 분열 될 것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9-13).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날마다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에 우리 자신들을 말갹시다

▶ 기도제목 / 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결한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각 교구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되어 날로 부흥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솔로몬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아비 다윗으로 부터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파괴의 주범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생이 말라버리는 것과 같이 솔로몬의 심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터 점점 더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과거 솔로몬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안에는 사방으로 더불어 평화를 누렸습니다(4:24). 그러나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자 사방 나라들과의 평화 역시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도 그를 떠나시고 그의 대적들을 일으키신 것이었습니다. 하닷과 르손과 같은 인물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 솔로몬을 대적하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주변에 두신 나라들로 솔로몬을 시험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은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신앙이 점점 더 하강 곡선을 그리며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영의 눈과 귀는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것은 멸망으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웃과의 평화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기도제목 / 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찬송/446장 본문/왕상11:26-43

솔로몬의 어리석음은 그의 지체를 덮고도 남음이 있어 결국 내부의 반란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이루어 놓은 통일 왕국의 분열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의 유력한 인물이 솔로몬의 강력한 견제자로 등장했습니다. 그는 솔로몬에 의해서 백성들의 감역관으로 세움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26-28절). 그가 솔로몬의 감역관으로 백성들 앞에 섰을 때 솔로몬이 지나치게 백성들을 혹사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감역관의 자리에서 많은 백성들의 신임을 얻었습니다(12:3). 이것으로 보아 그가 비범한 인물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를 솔로몬의 징계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그의 신복에게 주리라”고(11절)한 예고를 실행시켜 나가시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 선지자 아히야를 여로보암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아히야는 일련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리신 모든 내용들을 여로보암에게 알립니다. 충격적인 것은 왕국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찢어 여로보암에게 붙이시고, 나머지 2지파만 유다에게 존속되리라는 예언입니다.(29-38절). 그러나 감사한 것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려고 언약의 핵심인 유다 지파를 솔로몬 왕국에게 존속시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때를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기도제목 / ①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② 이 나라에서 모든 불의와 부패를 소멸시키시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찬송/359장 본문/왕상12:1-19

수로몬의 40년 통치가 끝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위가 넘어갔을 때 나라는 심히도 어수선했습니다. 따라서 르호보암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비교적 비협조적이었던 북쪽의 지파들을 자신의 사람들로 끌어들이기를 원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이를 위해 세겜에서 북쪽 지파의 사람들과 담판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이 회담의 파트너는 이미 아버지 시대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애굽으로 피난하였다가 돌아온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 및 함께한 백성들의 요구는 선왕의 혹사로부터 자신들을 구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르호보암의 마음이 강박케 되어 이제 자신은 아버지때 보다 더한 채찍과 노역으로 그들을 사로잡겠다고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에는 그와 같이 함께 하나님 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권력을 휘두르려는 모리매들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10지파를 데리고 다윗 집안과의 관계 청산을 선포하고 제갈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르호보암은 지극히 어리석고 게으른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 솔로몬의 걱정 거리였습니다. 한편 여로보암은 자신의 지혜로 말미암아 스스로 다윗의 언약을 떠나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는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르호보암과 같이 어리석은 자의 길로도, 그리고 여로보암과 같이 교만 한자의 길로도 가지 말고, 겸손 한자의 길로, 순종하는 길로 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그의 말씀을 바라는 자입니다

▶기도제목 / ①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결정짓는 것은 내면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결정을 좌우하는 것은 가치관입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말이나 행동이 달라집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하여 북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은 통일왕국을 이루기 위해 전쟁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해 전쟁을 하지 말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르호보암은 여호와의 말씀을 좇았습니다(24). 이제 여로보암을 봅시다. 여로보암은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습니다(33). 백성들이 혹시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자기 정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욕망으로 벨엘과 단에 우상을 만들어 두고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자체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도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절기를 7월에서 8월로 자기 마음대로 옮겼습니다.

우리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통해 중요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입니까? 말씀과 자기 마음이 일치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치가 되지 않을 때 무엇을 선택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서슴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 기도제목 / ① 기도제목 :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하소서. ② 이 사회가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도와 주며 함께 사는 법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사람에게는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 뼈저리게 후회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회를 저버리는 실수를 거듭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다가오는 기회를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에서 벨엘에 올라온 어떤 무명의 선지자는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치달고 있는 여로보암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있는 여로보암을 향해 장차 요시야 왕이 여로보암이 쌓은 벨엘에 있는 단을 부수고 제사장들을 죽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다시 거둘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권세 위에 군림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그때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의 간청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를 낮게 해주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회개하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과감히 그의 친절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였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경고도 들었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를 요청하는 하나님의 기회에 응답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죄로 인하여 슬퍼하지 못하고 가슴 아파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과 사인을 분별하여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은 회개할 기회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 기도제목 / ①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돌이킬 수 있게 하소서! ②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유혹을 접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등은 하지만, 유혹이 가져다 주는 혜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맙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유혹 가운데 서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유혹에 실패한 세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벨엘에 사는 늙은 선지자는 13:1-10절까지 일어났던 패기있는 젊은 선지자에 비해 매우 소심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찾아오는 안주하고 싶은 욕망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벨엘에 살면서도 여로보암 왕의 죄악에 대해 한마디도 외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초청에 거절하는 젊은 선지자를 집에 초청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다고 속이는 행위까지 과감하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다에서 온 젊은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는 여로보암의 죄를 과감하게 지적합니다. 그러나 교묘한 속임수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하고 벨엘에서 음식을 먹으므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로보암은 마지막까지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지 못하고 우상숭배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안전에 대한 욕구가 크면 거짓말까지 하도록 타락시킵니다. 한때 위대한 믿음을 소유했다고 자부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감미롭게 다가오는 유혹, 거칠게 다가오는 유혹들을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혹은 당신을 휘어잡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 ① 유혹의 손길에 휘말리지 않고 뿌리칠 수 있게 하소서! ② 이준교 선교사(이집트)의 신학교 사역과 한인교회, 현지인 개척교회 사역이 많은 결실을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드고 보자고 하는 사람치고 무서운 사람보지 못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호지부지해 버리는 것이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호지부지해 버리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방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에게 떠오른 인물은 한때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한바 있던 아히야였습니다. 그는 아내를 변장시켜 늙은 아히야 선지자를 속여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남편의 말에 그대로 따라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늙은 선지자 아히야에게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숭배로 등을 돌린 여로보암을 호되게 책망하면서 그의 집을 쏘아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 아비야는 선지자의 말대로 죽었고, 여로보암이 죽은 후 왕이 된 나답 역시 2년의 짧은 통치로 바아사에게 죽임을 당하고 가문이 멸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일점일획도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그러하지만, 우리들을 향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 라고 순종으로 움직일 뿐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매여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하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 ▶ 기도제목 / ① 아니오가 아니라 예라고 응답하는 입술을 허락하소서 !
②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하루 속히 허락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어떤 형태이든지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의 성공에 대한 기대, 자녀들에 대한 기대, 이러한 기대가 깨어지는 순간 낙심하게 됩니다. 당신의 가슴에는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유다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를 짊어진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으로 치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기대를 산산히 부수어 버리는 타락의 길을 본받았습니다. 애굽왕 시삭은 르호보암을 쳐서 예루살렘을 탈취하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그때 르호보암과 백성들은 스스로 결비하여 하나님의 공화를 간구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시삭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대하12:1-12). 그러나 르호보암은 시삭에게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줌으로 그의 마음을 달래고자 했습니다. 이제 르호보암은 낯으로 만든 방패를 만들어 자신을 호위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열매들을 남기지 못한채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에 대한 기대 때문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박는데까지 허용하셨습니다. 오늘도 당신을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기대를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당신의 생애에 두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제목 / 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깨닫게 하소서! ② 정은희 선교사(케냐)가 사역지에 잘 적응하여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찬송 / 321장 본문 / 왕상 15:1-14

소위 성령께서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기질이라고 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표현은 기질의 강한 고집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나쁜기질 곧 쏟뿌리는 무엇입니까?

아비얌이 유다 왕이 되었으나 그는 부친 르호보얌이 걸었던 패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했던 다윗을 생각하사 아비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10:8). 아사는 다윗과 같이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쏟뿌리를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산당은 없애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바아사와의 전쟁에서 그는 아람의 벤하닷에게 선물과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선지자 하나니는 아사 왕을 책망했습니다. 아사 왕은 회개하기 보다는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대하16:10). 회개할 줄 모르고 쏟뿌리를 고집하던 아사 왕은 발에 병이 생겨 죽게 되었습니다. 아비얌은 아예 처음부터 악한 길에서 허덕였고, 아사 왕은 처음 출발은 좋았으나 그가 처리하지 못한 누룩이 갈수록 더 부풀었으며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죽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의 쏟뿌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자그맣게 남겨두었던 누룩이 나의 삶을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손에 나를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자그맣게 남겨둔 쏟뿌리가 위험합니다.

- ▶기도제목 / ①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쏟뿌리에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그 정적인 삶은 다른 사람을 통해 배워야 하고, 부정적인 모습은 오히려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성경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악한 것을 더 잘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을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2년 동안의 짧은 기간을 통치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통치를 했습니다. 그는 우상숭배로 하나님께 미움을 샀던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바아사의 모반으로 김브돈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바아사는 나답을 죽이고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 나답의 집안을 철저하게 진멸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선지자 아히야가 예언한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14:14). 모반을 통해 왕이 된 바아사가 걸어간 길을 보십시오(34). 그도 역시 멸망의 길인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도 돌이키지 못하고 그 길을 계속해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러한 모든 답습의 길을 끊어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은 아비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은총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악한 길에 앉지 말게 하소서 ! ② 김형선 평신도 선교사(뉴질랜드)의 원주민 선교가 주님의 뜻 안에서 계속 열매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어떤 사람들은 평생토록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격하지만 얼마있지 않아서 아
예 잊어버리거나 오히려 은혜를 악으로 갚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선지자 예후가 바아사 왕을 무섭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집안까지 엄청난 재앙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예후의 예언대로 얼마있지 않아서 바아사는 죽게 되고(6), 그
의 아들 엘라 조차도 2년의 통치 기간 동안 신하 시므리에게 모반을 당하
여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집안마저 철저하게 멸망하고 맙니다
(11-12). 선지자 예후가 바아사에게 이렇게 책망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가
말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천한 출신 바아사를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총인줄 알고 하
나님을 경외하면서 바른 통치자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
나님을 저버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2). 자기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 조차도 범죄케 만드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진
토에서 들어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
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누리게 된 엄청난 은총입니다. 배은
망덕한 길로 나아가지 말고 은총의 자녀로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
다. 교만할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
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 기도 제목 / ① 은총의 자녀답게 감사하면서 겸손한 길을 걷게 하소서!
② 이기성 평신도선교사(호주)가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한인 교
회와도 잘 협력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합니다. '내가 이것을 한다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한 나머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시므리와 오므리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전왕(前王)인 엘라 왕의 신복들로서 각기 혁명을 통해 정권을 차지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여로보암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19, 25절) 말았습니다.

시므리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단명(短命)한 왕으로서 7일 동안 통치했을 뿐이기에 특별한 업적이 없습니다. 반면 오므리는 내적으로는 정치적 안정을 꾀하고 외적으로는 남방 유다와 외교적 우호 관계를 형성했으며,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겨 제 2의 예루살렘 건설을 시도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므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한 자로 평가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권세와 업적보다는 거룩과 정결과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자가 됩시다.

▶ 기도 제목 / ①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여 거룩과 정결함으로 옷입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고은빈 평신도선교사(케냐)의 어린이 사역과 문맹 퇴치 사역이 아프리카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다루실 때 사용하시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약 4:6, 벰전 5:5)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 사용하지 않으실 뿐더러 그를 대적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교만한 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게 무시합니다. 아합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람 나라의 남하 정책을 저지시키기 위해 베니게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고후 6:14, 신 7:3)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국방력 강화를 이유로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습니다. 그는 국방력이 인간의 힘에서 나온다고 믿은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엄숙한 경고 즉 '아무도 다시 여리고성을 세우려고 하지 말라' (수 6:26)는 음성을 무시한 채 여리고가 중요한 요새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 벨엘 사람 히엘을 시켜 여리고 성을 깨뜨려도록 명령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무렇지 않게 여겨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은 하나님의 심한 분노를 촉발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한 자가 됩시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이 세상 사람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려면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할례자와 무할례자로 나눌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백색인종과 유색인종으로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앙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본문은 선지자 엘리야의 등장을 알려줍니다. 엘리야는 무대에 등장하자마자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이 기근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근을 피하여 사르밧으로 갑니다. 사르밧은 이세벨의 아버지인 엿바알의 영토로서 바울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한 과부를 만납니다. 그는 그녀에게 먹을 떡과 마실 물을 요구하였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과부는 생존의 위협을 가장 많이 받는 계층이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에 들어닥친 기근의 영향으로 그녀는 자신과 자식이 먹을 마지막 한 움큼의 밀가루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인은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선지자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녀는 선지자의 약속(14절)을 믿었던 것입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15절). 그녀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번영을 위해 바알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길을 걷는 신앙의 사람이 됩시다.

▶ 기도 제목 / ①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② 허요셉 평신도선교사(이집트)가 진행하는 회교권 선교 사역이 결실을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 힘을 의지하고 주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분명코 믿음으로 드러져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만이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본문은 믿음의 기도를 드려 응답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자기를 시중들던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엘리야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로 인하여 가능했음을 말해줍니다(약 5:15-18).

믿음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시중드는 중에 자기 아들이 죽자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18절). 그러나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자, 아들의 죽음이 자신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총이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24절).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됩시다.

▶ 기도 제목 / ① 늘 믿음의 기도로 무장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농어촌교회들을 통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우 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마 5:13-16). 빛과 소금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기도'라 불리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15절).

본문은 영적으로 혼미한 아합 왕 시대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산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바댜입니다. 그는 바울 신앙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아합 궁중의 고위직 벼슬아치였지만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3절). 그래서 계속된 가뭄 때문에 아합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자 목숨을 걸고 자신의 고위직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굴에 숨겨 보호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바댜는 악한 왕 아합 왕 밑에 있었지만 믿음 있고 지혜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세상을 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악한 세상 속에 들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오바댜와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바댜와 같은 빛과 소금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 기도 제목 / ① 악한 물결이 소용돌이치는 세상 속에서 늘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② 병든 자들이 치유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육간에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애가 서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유다와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꾸준히 예언하여 왔습니다. 그 예언은 이제 현실로 다가왔고 선지자는 그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도해야 했습니다. 견고한 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집니다. 기름부음을 받은 왕은 두 눈이 뽑혀 사로잡혀 갑니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열방으로 흩어집니다. 선지자는 바로 이와같은 모든 파괴의 현실을 자신의 눈으로 마치 종군기자와 같이 목도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슬프다 !” 그의 입에서는 탄식이 흘러 나옵니다. 그래서 제1-4장까지의 네 편의 비탄시와 제 5장의 한 편의 기도시등 다섯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슬픔의 노래가 불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유다와 예루살렘의 파괴의 현실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탄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단절되지 않으며 새로운 소망의 빛줄기를 보여 줌으로 인해 위로를 주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애가입니다. 본서는 답관체의 형식(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시의 각 행이 시작됨)으로 되어있습니다. 잊지말고 잘 기억하여 이 노래를 부르면서 경고를 받고 위로를 받으며 소망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또한 유다의 죄의 심각성과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보면서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난 예루살렘의 파괴된 현실의 구체적인 묘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서에서 보는 바와 같은 파괴된 현실의 심각성 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쏟아지는 한 나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

고 그 나무에 고통스럽게 달려있는 세상 죄를 지고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유다의 범죄함 만으로도 애가에 나타난 그 고통스러운 절규를 들어야 하는 것이었다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받으시는 그 고통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애가를 부르면서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최악이 점점 관영해 가는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불려야 할 노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동시에 시대의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한 그 가운데 물들어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심령을 동시에 가지며 부흥의 열망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의 주요내용

제1장 파괴와 살육이 휩쓸고 간 예루살렘의 폐허에서 타져나온 절규와 호소

제2장 예루살렘 패망 사건에 담긴 여호와와 심판의 손길에 대한 훈계 및 심판 주 여호와를 향한 애원

제3장 심판의 멸망에 처한 선민의 비탄과 하나님의 구원의 간구 및 확신

제4장 예루살렘 패망 당시의 참상에 대한 비탄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 및 회복의 소망 선언

제5장 심판에 처한 선민의 호소와 회개 및 조속한 회복을 비는 간구

제 1 과

예레미야애가 (1)
잃어버린 것들찬 송 / 256장
읽을 말씀 / 1장
공부할 말씀 / 1:1-8

먼저읽기

당신의 삶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은 없는지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동산 중앙의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나서 가장 애통해 할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바로 아담과 하와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에덴의 그 충만함을 누리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바로 유다의 현실이 그러한 처절한 잃어버림의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1절, 2절)

2. 유다의 멸망으로 인해 변화된 유다의 현실은 어떠합니까?(1절)

본래는	이제는
거민이 많더니	
열국 중에 크던 자	
열방 중에 공부 되었던 자	

3. 6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유다의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사슴의 가련한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4. 예레미야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살펴 본 바 유다의 멸망의 현실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5절, 8절, 20절)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

1.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슬프다”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슬펐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그 파괴의 현장으로부터 살아남아 있지만 그는 자신의 생존으로 인한 감사보다는 민족의 현실을 지금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당신이 가장 슬퍼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가장 슬퍼했던 그 일과 지금 예레미야가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내용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2. 유다의 멸망으로 인하여 백성들은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야 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러한 상황가운데 처할 수 밖에 없었다면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 지를 생각해 봅시다. 다음의 도표를 보면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	현재의 상황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요1:12)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엡1:3)	
성령의 충만함(엡5:18)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살전 5:16~18)	

-
3.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 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요10:10)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위하여 당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나누어 봅시다.

제 2 과

예레미야애가 (2)

심 판

찬 송 / 277장

읽을 말씀 / 2장

공부할 말씀 / 2:1-14

먼저읽기

당신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눅12:4,5에서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 할 자를 네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파괴의 참상을 말하면서 그것이 바벨론에 의하여 진행되었던 것을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유다의 심판의 처절한 현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처절한 심판을 시행하시는 주체는 누구입니까?(1절, 2절, 3절)

2. 범죄한 유다를 향하여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누어 보십시오.(애3:33)

3. 12절을 당신의 말로 한번 표현하여 보십시오.

4.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주된 원인 중 지도자의 죄악은 무엇입니까?(14절)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

1.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대한 생각을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2. 예레미야는 마치 종군기자와 같이 유다의 심판의 현실을 정확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심판의 현실은 범죄한 유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심판의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긴장감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3. 유다가 범죄함으로 받은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과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형벌의 고통을 비교하여 보십시오. 주님이 받으신 고통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어 보십시오.
4. 슬프게 울부짖는 애가의 내용을 보면서 그것이 당신이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말해보면서 당신의 삶 속에서 죄의 유혹에 직면할 때에 주시는 지혜가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제 3 과

예레미야애가(3)

소 망

찬 송 / 492장

읽을 말씀 / 3장

공부할 말씀 / 3:19-32

먼저읽기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자연적으로 또는 우연히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손에 들고 있는 유리컵을 놓아버린다면 그것은 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섭리와 붙드시는 능력에 의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과 그리고 패허 가운데서도 은혜로 남은 자들에게 바로 이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소망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선지자는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19절)

2. 선지자가 중심에 회상함으로 가지게 된 새로운 소망의 원천은 무엇
입니까?(22절, 23절)

3. 모든 것을 상실한 유다에 있어서 새로운 소망의 터가 되는 기업은 무
엇입니까?(24절)

4. 회복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는 무
엇입니까?

26절

27절

30절

40, 41절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

1. 죄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는 최후의 심판을 말하지 않는다 하여도 오늘도 삶에서도
우리에게 쓰라린 아픔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그릇된 판단이나 죄로 인하여 겪었던 쓰디쓴 상처가 있다면 함께 나
누어 봅시다. 그리고 그것으로 부터 당신이 벗어나게된 계기가 있다

면 무엇이었는지를 나누어 봅시다.

2.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삶이 주어진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 천년이 주어진 것도 우연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호와와 성실하신 자비와 긍휼의 결과인 것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성실하신 자비와 긍휼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가급적이면 최근의 것으로 나누십시오.)

3. 잘못을 저지르고 벌을 서게 한 아이가 벌을 달게 받는 것이 보고 기특해서 아이에게 상을 줘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범죄한 가운데서도 회복을 기다리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대시는 징계의 채찍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회복을 기다리는 당신의 자세는 어떠하십니까?

제 4 과

예레미야애가 (4)

약 속

찬 송 / 467장

읽을 말씀 / 10:7-13:14

공부할 말씀 / 12:7-10

먼저 읽기

바벨론에 의해 점령을 당한 상태에서 남아있는 백성들을 색출해 내고 있는 바벨론 군사들의 서슬퍼런 눈빛을 생각하게 됩니다. 애굽이 도와줄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그들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 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도 도무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을 의지한 결과입니까? 존경받고 인정받던 지도자들이 마치 소경과 같이 방황합니다. 배척을 당합니다. 진정한 소망의 약속이 없다면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보이는 빛줄기가 있습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여호와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기초까지도 흔들리는 그 일들은 당시의 사람들이 예상하였던 일이었습니까?(12절)

2. 유다의 멸망의 원인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13절

17절

20절

3.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범죄함으로 인해 그들에게 미친 결과는 무엇입니까?(14-16절)

4.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고통가운데 처해있지만, 궁핍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22절)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

1.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침략당하는 것은 당시 세상 열왕과 천하 모든 백성이 예상치 못하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현실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당신의 삶에 있어서 도무지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이 있다면, 또는 당신의 주변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것들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2. 시편 기자는 시121장 1,2절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멸망 당시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애굽을 의지하였고 또한 인간 왕(기름 부음을 받은 자) 콧김 즉 ‘생명을 주는 숨결’을 의지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당신의 삶에 있어서 위기의 상황에 처할 때 가장 먼저 의지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3. 죄가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하던 영적 지도자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은 이제 철저히 배척당하고 존경 받지 못하는 위치에 설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어렵게 꼬여 있는 인간관계들은 무엇입니까? 그 어려운 관계들이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함으로 인해 되어진 부분은 없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주변 사람이 나의 대적이 되게 하심)

4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해 있을 수 밖에 없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 그들에 대한 형벌의 종료와 자유케 됨에 대한 약속은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한 줄기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약속을 나누어 보십시오.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18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

찬 송 / 397장

읽을 말씀 / 요 3:16-20

외울 말씀 / 고후 2:14

요10:10을 읽어보십시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1. 당신의 삶을 도적질 하려는 존재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당신의 삶은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과 도적질 당하는 삶의 어느 편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지 나누어 보십시오.

2. 다음의 두 말씀을 보시면서 빈 칸을 채워 봅시다.

	(벧전5:8)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하16:9) 여호와 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 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주시하는 두 존재		
붙잡히는 결과		

엡5:18을 읽어봅시다.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3. 당신의 삶에 놓여있는 두 종류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술에 취한 삶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삶
확장된 의미	돈에 취한 삶 권력에 취한 삶 () 취한 삶	말씀으로 충만한 삶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 충만한 사람
결과	방탕함(갈 바를 알지 못해 갈팡 질팡하는 삶)	엡5:19() 엡5:21()
		엡5:22-28(충만한 부부 관계) 엡6:1-4(충만한 자녀들과의 관계) 엡5:5-9(충만한 직장에서의 삶)
당신의 삶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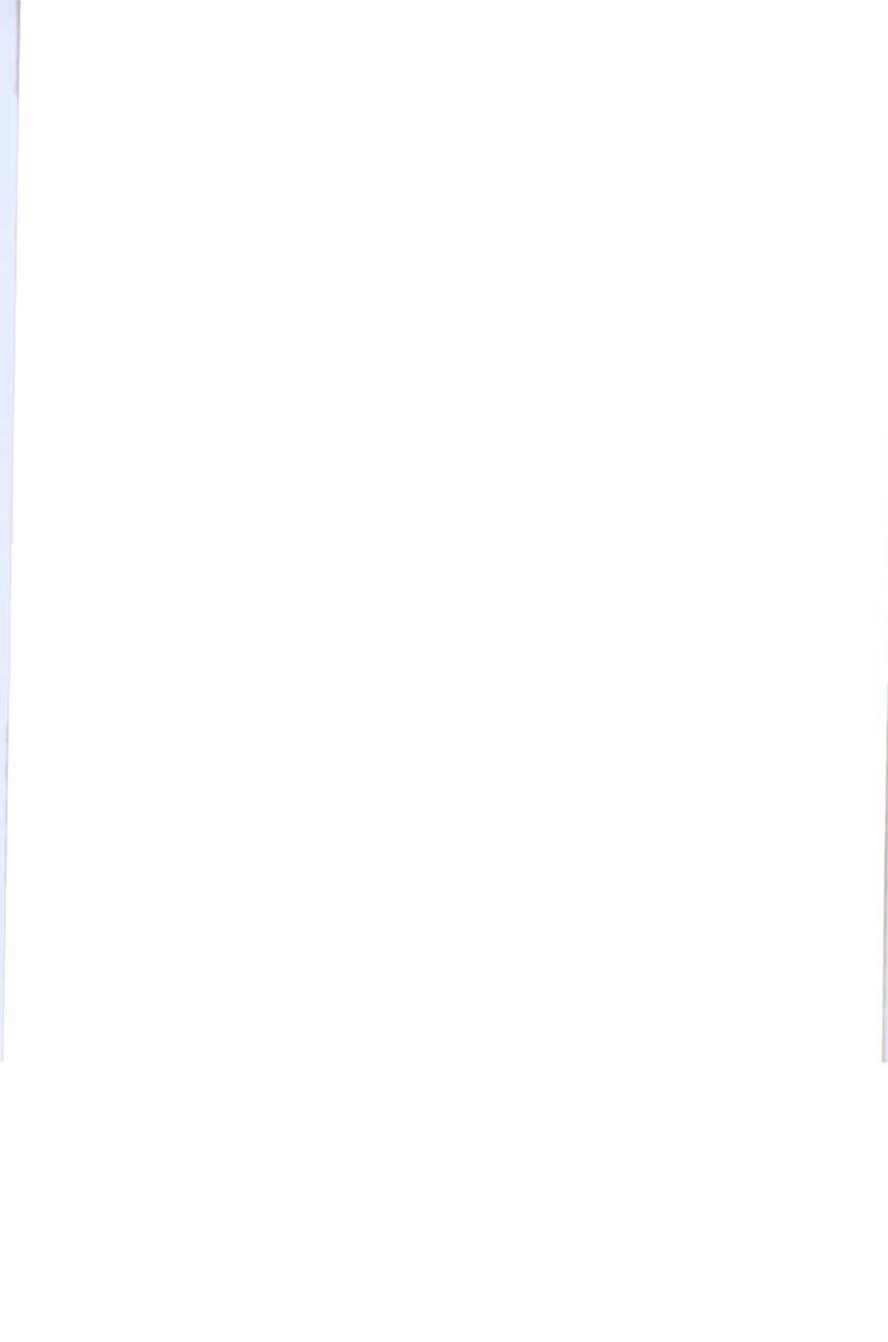
고후2:14을 읽어 보십시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4.다음의 빈칸을 채워 보십시오.

승리할 수 있는 시간	승리의 길	승리의 결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내게하심

5.당신의 영적인 삶 속에서 체득한 승리의 길에 대해서 나누어 보시고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